재가불자들이 말하는
**간화선 무차대회**

### 수행하는 불자로서 기대됩니다



**임주현(50) 씨**

광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 대회에 참여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기사를 조회하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간화선에 관심이 많고 늘 수행하는 불자로서 이번 대회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 31만 대중 운집 감동 그 자체



**진인자(69) 씨**

서울 능인선원 신도로 언론에 소개된 간화선 무차대회 예고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광화문 광장에 31만 사부대중이 함께했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매일 108배 참회기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참선은 아직 어려운 거 같다. 그저 수행하는 스님들을 옆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 듯



**박지혜(59) 포교사**

조계종 포교사(속초 신흥사 신도)로 포교사단 진행 봉사자로 참여했다. 너무 장엄하고 웅장한 행사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스님들의 수행 방편, 간화선을 보여주는 행사에 불자 비불자 모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듯하다.

### 한국 불교, 관심 갖게 됐어요

**아쑤미나(벨기에, 여)**

"우연히 주말 나들이를 왔다가 진귀한 풍경을 보게 됐다. 이 행사 덕분에 한국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흥분된다. 특히 스크린에 영어 자막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소할지 모르나 이 축제가 세계인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막이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스님 법문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만(벨기에,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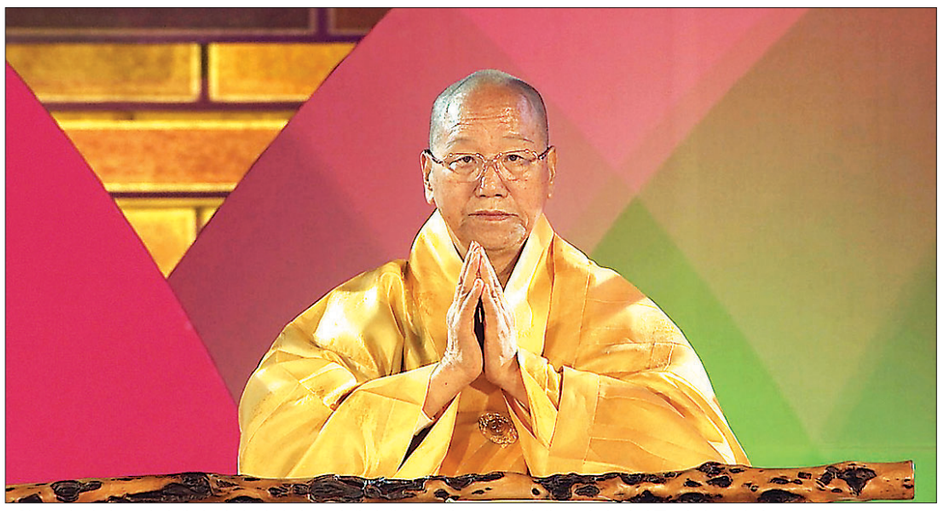
"이런 행사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니 매우 놀랍고 함께 하게 되어 행운이다"

정혜숙, 박아름 기자

# 참나 깨닫는 수행은 마르지 않는 '福樂'

## 조계종 종정 진 제 스님 간화선 무차대회 법어

5월 15~17일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대중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간화선' 수행에 대해 설했다. 스님의 법문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BTN불교TV 생중계 캡쳐

**古佛未生是誰主〈고불미생시수주〉오**
**寥寥寂寂體平安〈요요적적체평안〉이라.**
**大千世界共一家〈대천세계공일가〉요,**
**情與無情同一體〈정여무정동일체〉로다.**

옛 부처가 나기 전에 누가 우주의 주인공인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평안한지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대중여러분께서는, 방금 산승이 말한 그 주인공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天地萬物의 근본이요, 일체중생의 마음자리입니다.

이 근본자리는 텅 비어 고요함이나 분명하고 분명한 자리입니다.

온갖 망령된 생각들을 즉각 내려놓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본래의 마음자리며 본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미혹하면 중생이요, 항상 밝아 있으면 부처이기에, 범부와 성인이 근본자리에서는 둘이 아님이요, 그대로 광명(光明)이요, 생명이요, 평화요, 대자유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마음을 깨달아 참나를 찾으면 영원한 행복과 대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요, 사람이 곧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삶을 사는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서원입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진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뇌망상을 놓아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걸림 없는 대자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번뇌에 미혹할 때는 고해의 사바세계가 있으나 참나를 깨달으면, 시방이 공(空)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바로 해탈열반의 삶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원력으로 중생을 위해 겨자씨만한 땅에도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촌 인류에게 장군죽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 받으면 되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오늘의 사회풍조 속에서 인격도야의 실천행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과 대지혜와 자비를 얻고자 하면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해 산승이 만인에게 여섯 가지의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망령된 생각 즉각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마음자리**
**참나 찾는 마음가짐 '육바라밀'**

**마음의 평화는 '간화선' 수행으로**
**천만번 반복 의심 '일념삼매' 들자**

**첫째는 보시로써 만복과 덕행을 쌓아야 함이요,**
**둘째는 지계로써 청정하고 성실하여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함이요,**
**셋째는 인욕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분별심을 이겨내어 장애를 걷어 내는 것이요,**
**넷째는 정진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잘 참구하여 중생의 미혹한 마음을 닦는 것이요,**
**다섯째는 선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닦아 온갖 두려움을 없애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요,**
**여섯째는 지혜로, 일체를 다 알아 무애자재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나아갈 길을 지극한 마음으로 금쪽 같이 받아 행하시면 필경에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화합과 행복한 정토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산승은 금일 이 무차법회의 자리를 빌어 지구촌의 참된 평화와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화두참선을 통하여 참나를 깨닫는 '간화선'이라는 마음닦는 수행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류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간화선은 화두를 챙겨 간절히 의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체처 일체시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챙기고 의심할지니, 오로지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지도록 하루에도 천번만번 반복해서 챙기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일념삼매에 들어 크게 죽었다가 홀연히 살아나게 되면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대지혜와 대안락, 대자유와 대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나를 깨닫는 그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락이 있는 것이니,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지중하고 지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께 대오견성의 희망을 드리고자, 간화선 참선수행을 잘 해서 진리의 경지를 깨달아 그 살림살이를 자유자재로 쓰다 가신 옛 도인들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셨던 경허선사의 상수제자인 혜월선사(慧月)선사로부터 심인법(心印法)을 전해 받은 77대 조사인 운봉(雲峰)선사라는 대도인이 계셨습니다. 운봉선사는 법을 이은 뒤에도 제방 선원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철 한 철 여법히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망월사에서 "삼십 년 결사를 하자"하여 제방에서 발심한 스님들이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조실스님으로는 용성(龍城)선사를 모셨고, 선덕으로는 훗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석우(石友)선사를 모셨습니다. 입승(立繩)은 운봉선사께서 맡아 모든 대중이 밤과 낮으로 여법히 참선정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법회가 있어 용성 조실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함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도인 스님들도 보지 못함이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를 보려는고?" 하고 멋진 법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답이 없는 가운데 운봉선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답을 하였습니다.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멋진 답을 하니, 용성선사께서는 아무런 말없이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40여 년 전에 산승의 스승이자, 운봉선사의 법제자이신 향곡(香谷)선사께서 산승에게 물으시기를, "만약 진제 네가 당시의 용성선사가 되었다면, 운봉선사가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고 답할 때에 무엇이라 점검하고 법상에서 내려가겠는고?" 하시니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사자가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하니, 향곡선사께서 매우 기뻐하셨으니, 전광석화와 같은 바른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천고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안목이 줄탁동시에 이루어질 때 점검과 인가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신라와 같은 시대인,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위대한 방거사(龐居士) 일가족 도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선법이 유래한 후로,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 방거사의 안목을 능가할 만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드뭅니다.〈중략〉

어느 날 방거사가 가족과 함께 방에서 쉬고 있다가 불쑥 한 마디 던지기를,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일백석이나 되는 기름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하니, 방거사 부인보살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이 모두 불법의 진리이구나" 하고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 영조가 석화전광으로 받아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신 모든 대중은 방거사 일가족을 아시겠습니까? 방거사가 말한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며, 방거사 부인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이 모두 불법의 진리이구나"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또,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이 세 마디에 모든 성인과 모든 도인께서 설하신 법문이 다 들어 있으니, 이것을 가려낼 줄 안다면 모든 성인과 모든 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중략〉

만약 산승이 방거사 일가족이 한 마디씩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은 차를 다려서 한 잔 씩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한 잔씩 드린 것은 법문을 잘 해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드린 것입니까?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국에서 산화하신 영령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분들과 네팔 대지진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희생되신 모든 영가들께서도 삼독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극락정토에서 대안락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진리의 한 마디를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나뭇가지에 새 움이 자라서**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봉축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도일 교육국장 용주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국사(봉진)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문수사(성묵) 용주사(용주)
지성사(지성) 청호암(혜인) 당포사(종철) 성불사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대공) 용연사(취암) 여래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천운사(선봉)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쌍암사(덕산) 약불암(혜각) 구룡암(대공)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남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약수암(법륜) 공덕사(선혜) 은진정사(고경)
도심사(도안) 쌍암사(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쌍봉암(쌍묵) 종단승려, 신도일동

축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법어 봉독 기념

■ 종단 입종 안내
- 대상 : 사찰 및 종도 (승려, 법사, 포교사)
- 문의 : 총무원 051-514-8766 직 통 010-9706-1103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521-1236)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010-9706-1103)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